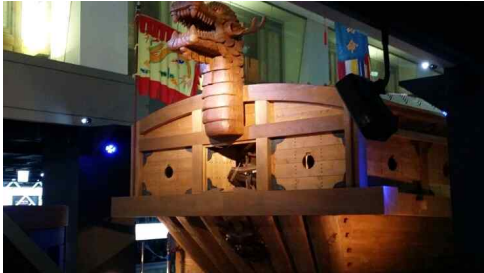


제목 : 거북선을 연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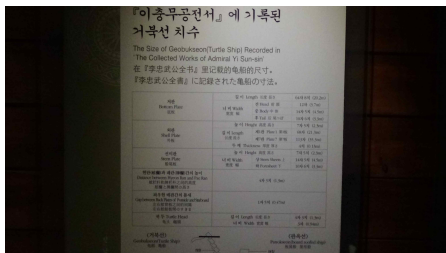
강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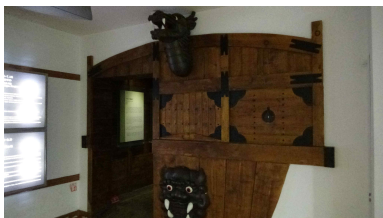
사진은 서울 세종문화 회관 충무공 이야기 전시실에 있는 ‘거북선’모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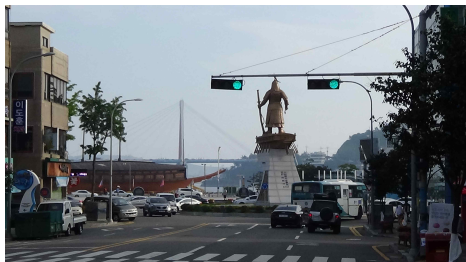
사진은 전남 여수시 전라좌수영(진남관) 앞 충무공 광장에 있는 ‘거북선’실제 크기의 모형입니다.



사진은 전남 여수‘진남관 전시실’에 있는 거북선 치수입니다.



사진은 여수 진남관 충무공 전시실내부를 거북선으로 꾸민 것입니다.



사진은 전남 여수시 충무공 동상과

거북선입니다.



사진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충무공

이야기 전시실에 있는 거북선 내부 모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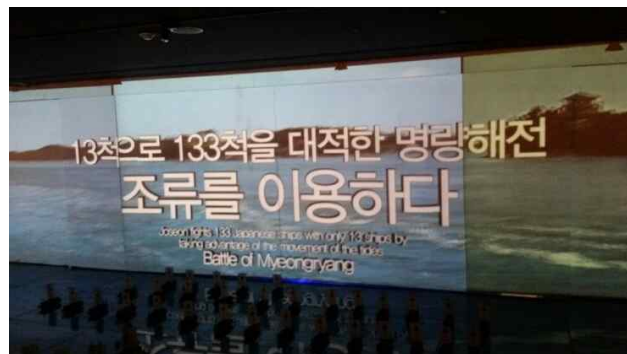
사진은 거북선에 대한 자세히

구조를 설명해놓은 전남 여수 진남관의 거북선 내부 설계도와 실제

모형(대포)을 전시한 것입니다.

2015년 여름 방학이 시작된 지난 7월 말 나는 광복 70년을 맞아  
기억에 남을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광복 70 서포터즈’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충무공 이순신’의 바다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리에 큰 공을 세운 거북선 연구로 정했다. 8월 13일  
거북선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우선 거북선의 실제 크기로  
전시된 전남 여수로 갔다. 위 사진에서 여수에 있는 ‘진남관’에 가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거북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제 크기  
로 전시되어 있어 내 ‘거북선’ 궁금증을 풀어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엔 상시 ,충무공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어

8월 16일 그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내가 이곳‘충무공 이야기’ 안내 데스크를 들어서자마자 거북선이 떡 버티고 있었는데 전시관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북선을 탈 수 있고 만들기도 하며 실제 왜군과 우리 남해 바다에서 전투를 체험할 수 있게 참으로 거북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무척 노력한 것이 보였다. 왜 나는 이곳을 몰랐던가? 시청각 자료 또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마치 게임을 하듯 거북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충무공 이야기’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면 꼭 와봐야 할 충무공 박물관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 나는 확신했다. 아래 사진은 ‘충무공 이야기’에 전시되어 있는 세계대전 사상 기록에 남은 ‘명량해전’에 대한 동영상 기록물입니다.



올 2015년은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36년의 우리 민족의 일본에 대한 투쟁과 일제 만행으로 희생된 민족적 불행에 대해 연일 외치고 있다. 사실 내 마음엔 이게 그리 마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슬픈 과거만을 기억하자는 것은 패배자가 갖는 역사의식이라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만의 특별한 광복 70을

기념한 이 번 ‘거북선 연구’는 내가 이제까지 불만족스럽게 갖고 있던 일본에 대한 역사적 패배의식을 말끔히 씻어 버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충무공’과 같은 영웅이 있었으며 10배의 가까운 왜군의 전함을 무찌른 거북선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진은 지난 7월 17일 광복 70 서포터즈 발대식 후 퍼포먼스를 광화문 광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충무공’ 동상이 보이네요. 저는 발대식 서포터즈 대표로 선서를 했거든요.

